

# A Study on the Dynamics of the Labor Markets in the Korean Economy

## 국내 노동시장 동학에 관한 연구

Kapje Park<sup>1</sup>

박갑제<sup>1</sup>

<sup>1</sup> Professor, Department of Real Estate, Economic and Finance, Kyungnam University, S. Korea,  
[park0318@kyungnam.ac.kr](mailto:park0318@kyungnam.ac.kr)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dynamics of the Korea labor market based on the framework used in the matching model. Specifically, this paper estimates the dynamic impacts of fundamental structural shocks on the labor force, unemployment and job vacancy that a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variables in the labor market. To this end, this paper uses the vector autoregression model to identify economic shocks in the labor market and then estimates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the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The estimation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a positive shocks to the labor supply lead to statistically increase th labor force and job vacancy. On the other hand, we find that unemployment rises immediately after a labor supply shock, but the effect is short-lived. Second, the shocks to the economic activity was shown to increase the labor force and job vacancy, but decrease the unemployment. Third, the reallocation shocks are estimated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vacancies, but increase unemployment. The variance decomposition results suggest that the variation in the forecast error of the labor force is due to labor supply shocks, the variation in the forecast error of vacancy is due to economic activity shocks, and the variation in the forecast error of unemployment is mainly due to reallocation shocks.

**Keywords:** Labor Market Dynamics, Job Vacancy, Impulse Response Fuction, Variance Decomposition, Matching Model

**요약:** 이 논문은 탐색·매칭모형에 기초하여 한국 노동시장의 동학을 규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 논문은 노동시장의 경제적 충격들이 노동시장의 주요 변수들이라고 간주되는 경제활동인구, 실업규모 및 빈일자리(job vacancy)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on; VAR모형)을 사용하여 노동시장의 경제적 충격을 식별한 후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를 추정한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공급의 양(+의 충격은 경제활동인구와 빈일자리를 유의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공급충격 직후 실업은 상승하였지만 곧 바로 그 영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활동충격은 경제활동인구와 빈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분배 충격은 경제활동인구와 빈일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실업은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분산분해 결과 경제활동인구 예측오차의 변동은 노동공급충격에, 빈일자리 예측오차는 경제활동충격에, 그리고 실업의 예측오차변동은 주로 재분배 충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Received: January 08, 2023; 1<sup>st</sup> Review Result: February 22, 2023; 2<sup>nd</sup> Review Result: March 19, 2023  
Accepted: April 30, 2023

**핵심어:** 노동시장동학, 빈일자리, 충격반응함수, 분산분해, 매칭모형

## 1. 서론

이 논문은 주요 경제적 충격들이 노동시장 동학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노동시장의 동학과 관련하여 실업과 빈일자리의 관계가 주목을 받아 왔다. 이것은 실업/빈일자리 관계는 노동시장 기능과 노동시장의 경제 충격들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1]. 한편, 200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분석에 탐색·매칭(search and matching) 모형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2][3]. 이 논문은 이러한 탐색·매칭모형의 관점에서 도출될 수 있는 실업 및 빈일자리 변동의 함의를 국내 노동시장에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적인 매칭모형을 확장한 Blanchard and Diamond[1]의 방법을 사용하여 노동시장 변수들(경제활동인구, 실업규모 및 빈일자리)과 경제적 충격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세 개의 구조적 충격을 고려한다. 첫째는 경제활동충격(shocks to the economic activity)이다. 이것은 GDP나 산업생산의 변동에 고유한 구조적 충격을 의미한다. 두번째 충격은 노동공급충격이다. 세번째는 재분배충격(reallocation shocks)으로서 여러 산업부문에 대한 수요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의 부문간 이동(sectoral shift)을 유발하는 충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논문은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model; SVAR)을 사용한다. 그리고 SVAR모형을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적 충격을 식별한 후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를 추정하고자 한다.

그동안 집계적 노동시장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노동시장의 구직자(실업자)와 구인기업들간의 매칭함수를 추정한다던지 혹은 베버리지관계 즉, 실업률과 결원율(vacancy rate)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연구에 머무르고 있었고 노동시장의 경기변동적 동학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4-8].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노동시장동학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노동시장동학에 관한 국내의 실증적인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3장은 이 논문에서 채택하고 있는 실증분석방법인 구조적 자기회귀모형(SVAR)과 충격의 식별가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은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한다. 5장은 결론이다.

## 2. 선행연구

지금까지 국내의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동학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논문의 주제와 비교적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주제 즉, 노동시장 탐색과 매칭, 그리고 실업률과 결원율(vacancy rate)관계를 추정한 국내 선행연구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석남[4]은 국내 16개 시도의 연도별, 지역별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매칭함수를 추정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그는 노동시장의 정책 프로그램의 효과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기쁨[5]은 2011년부터 2019년기간 동안에 결원율과 실업률이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2015년 이후의 경기 위축을 반영하여 베버리지 곡선상에서 결원율과 실업률 조합이 점점 우측 아래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베버리지곡선이 이동하고 있는 것도 관찰되었다. 김지운[6]은

Borowczyk-Martins et al[7]의 방식을 이용하여 국내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매칭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매칭 탄력성은 0.859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다른 국가의 매칭 탄력성보다는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황수빈·박상순[8]은 우리나라의 산업별 실업 및 빈일자리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 미스매치 지수를 시산하였다. 그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COVID 팬데믹 확산 이후 미스매치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COVID 팬데믹이 산업별 경기에 불균등하게 그 효과를 발휘하며 그 결과 산업간 노동수급이 차별화되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노동시장에서 경제충격에 따른 노동시장 동학을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증적 연구는 국내노동시장의 동학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3. 실증분석모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동학을 살펴보기 위해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Blanchard and Diamond[1]의 노동시장모형은 노동자와 기업이 서로를 매칭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빈일자리와 실업이 공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주요 변수 즉, 빈일자리와 실업의 동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충격으로서 노동공급충격, 거시적인 경제활동충격 그리고 재분배 충격을 도입하고 있다. 거시적인 경제활동이 증가할 경우 기업들은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에 빈 일자리수는 증가할 것이고 실업은 감소할 것이다. 재분배 충격은 산업부문간 수요변동과 이에따른 산업간 일자리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의할 수 있다. 모형에 따르면 이 재분배 충격이 증가할 경우 빈일자리는 증가하고 실업도 증가할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함의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Blanchard and Diamond[1]의 실증분석모형을 국내 노동시장에 적용하여 살펴봄으로써 동일한 노동시장의 동학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할 모형은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VAR)으로서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y_t = c + \phi_1 y_{t-1} + \dots + \phi_p y_{t-1} + B\epsilon_t \tag{1}$$

여기서  $y_t$ 는 경제활동인구, 빈일자리수 그리고 실업으로 구성되는 벡터이다. 그리고  $\epsilon$ 는 노동시장동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충격인 노동공급충격( $\epsilon_f$ ), 거시적 경제활동충격( $\epsilon_c$ ) 그리고 재분배충격( $\epsilon_s$ )으로 구성되는 구조적 충격 벡터이다. 유도형 VAR 모형을 구조적 VAR 모형으로 만드는 것은 VAR 이노베이션  $e_t$ 와 구조적 충격( $\epsilon_t$ )간의 관계를 도입에 있다. 여기서 VAR 이노베이션(innovation)  $e_t$ 는 유도형(reduced form) VAR모형의 예측오차로서 유도형 모형의 추정에 따른 잔차항으로서 추정이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구조적 충격과 VAR 이노베이션  $e_t$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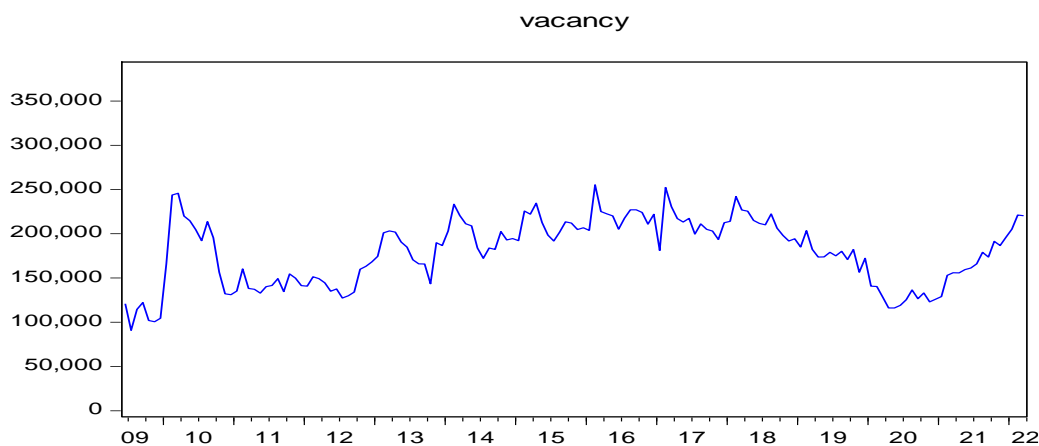
$$e_t = \begin{bmatrix} l \\ v \\ u \end{bmatrix} = \begin{bmatrix} 1 & \gamma & -0.4 \\ 0 & 1 & \beta \\ 0.5 & \alpha & 1 \end{bmatrix} \begin{bmatrix} \epsilon_f \\ \epsilon_c \\ \epsilon_s \end{bmatrix} \tag{2}$$

여기서  $e_t$ 는 경제활동 이노베이션  $l$ , 빈일자리 이노베이션  $v$ , 그리고 실업률 이노베이션  $u$ 로 구성된다. 그리고  $\alpha, \beta, \gamma$ 는 모수이다. 이 식(2)에는 구조적 충격들과 노동시장변수간의 구조적 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이 식(2)에 따르면 노동공급충격( $\epsilon_f$ )은 그것의 한 단위 변화가 경제활동인구(1)를 동시대적으로(contemporaneously) 한 단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정규화(normalization)하여 모형에 반영된다. 재분배충격( $\epsilon_s$ )가 경제활동인구에 미치는 동시대적 효과는  $-0.4$ 의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것은 Blanchard and Diamond[1]의 분석을 참고하였다. 또한 노동공급충격이 빈일자리( $v$ )에 미치는 동시대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하지만, 경제활동충격은 빈일자리수의 증가로 곧바로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했다. 마지막으로 노동공급충격( $\epsilon_f$ )이 실업률에 미치는 동시대적 효과는  $0.5$ 로 가정하였다. 이것도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 또한 재분배충격은 곧 바로 실업률의 증가로 귀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4. 실증분석결과

##### 4.1 자료 설명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노동시장의 시계열 자료는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수, 그리고 빈일자리수이다. 실업자수 시계열과 경제활동인구 시계열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추출하였으며, 실업자 수는 계절조정된 월별 시계열자료로 변환하였다[9][10]. 빈일자리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추출하였다. 아래의 [그림 1]는 2009년 6월 - 2023년 3월까지의 빈일자리(job vacancy)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에서 우리는 빈일자리는 표본기간 전체에 걸쳐 뚜렷한 상승 혹은 하락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본기간 초기인 2009년 6월에는 빈일자리가 월 120,000개를 약간 웃도는 수치였으며 경기회복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2010년 이후에는 큰 폭의 빈일자리수 증가를 시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2019년과 2020년 경에는 급격한 경기침체에 나타나면서 빈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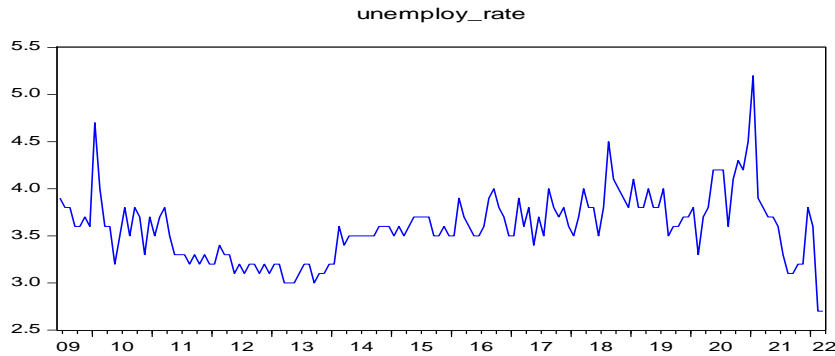


[그림 1] 빈일자리 시계열 자료

[Fig. 1] Vacancy Time Series

한편, [그림 2]에는 표본기간 동안의 실업률 추이가 나타나 있다. 이 [그림 2]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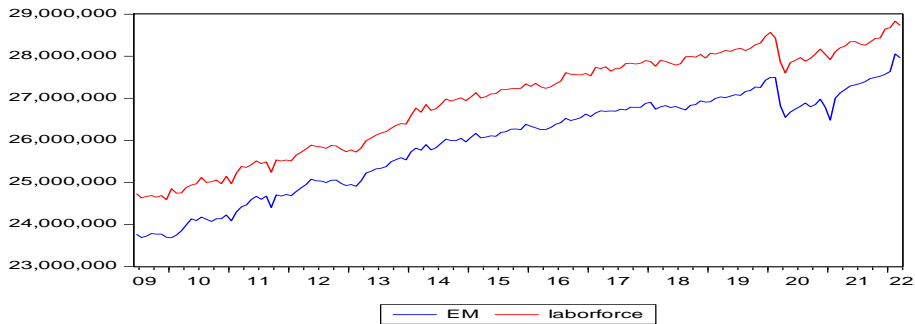
보여주듯이 2021년의 최근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3.0%에서 5%정도 사이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후반기에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2019년 이후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팬데믹이 거의 종식되어 가면서 급격히 감소하였다[11].



[그림 2] 실업률 추이

[Fig. 2] Unemployment Rate

[그림 3]은 국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시계열 추이를 보여준다. 표본기간 초기에 2천5백만명 이하였던 경제활동인구([그림 3]의 윗선)는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2년 후반에는 2천 9백만명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COVID19 팬데믹 동안에는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할 수 있다[11].



[그림 3]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시계열

[Fig. 3] Time Series of Employment and Labor Force

#### 4.2 SVAR 모형의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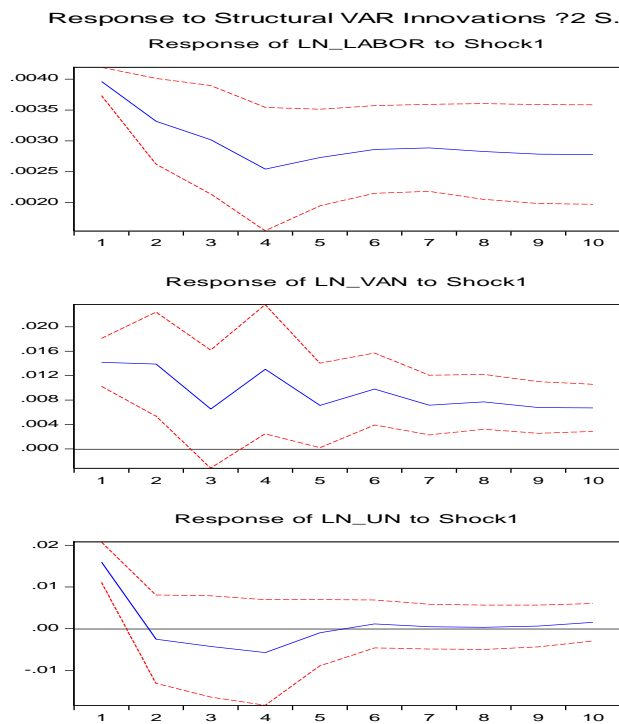
노동시장의 구조적 충격이 노동시장의 주요 변수들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앞에서 설명한 충격의 식별조건을 SVAR모형에 반영하여 추정하였다. 모형 추정에 사용된 변수는 로그변환된 경제활동인구, 로그변환된 빈일자리수 그리고 로그변환된 실업자수이다. 이 세 변수들은 ADF 검증결과 단위근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적분벡터에서 시간추세를 고려한 상태에서의 요한슨 공적분 검증 결과 공적분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논문은 로그변환된

변수를 그 자체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VAR 모형의 분석의 주 목적이 계수들의 유의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수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함이고 차분(difference)은 오히려 가치있는 정보를 누락시키기 때문에 수준변수의 VAR모형을 사용할 것을 원하는 Sims[12]와 Sims et al[13]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한편, VAR모형 추정을 위한 시차(lag)는 4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시차를 2, 3, 4로 했을 때 AIC와 SBC의 값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4보다 큰 시차에서는 AIC값은 큰 변동은 없었지만 SBC값이 약간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4.3 충격반응함수

본 절에서는 구조적 충격반응함수의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다시피 노동시장의 동학을 설명하는 경제충격은 노동공급충격, 경제활동충격 그리고 재분배충격이다. 이러한 충격들이 경제활동인구(LN\_LABOR), 빈일자리수(LN\_VAN) 및 실업(LN\_UN)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를 통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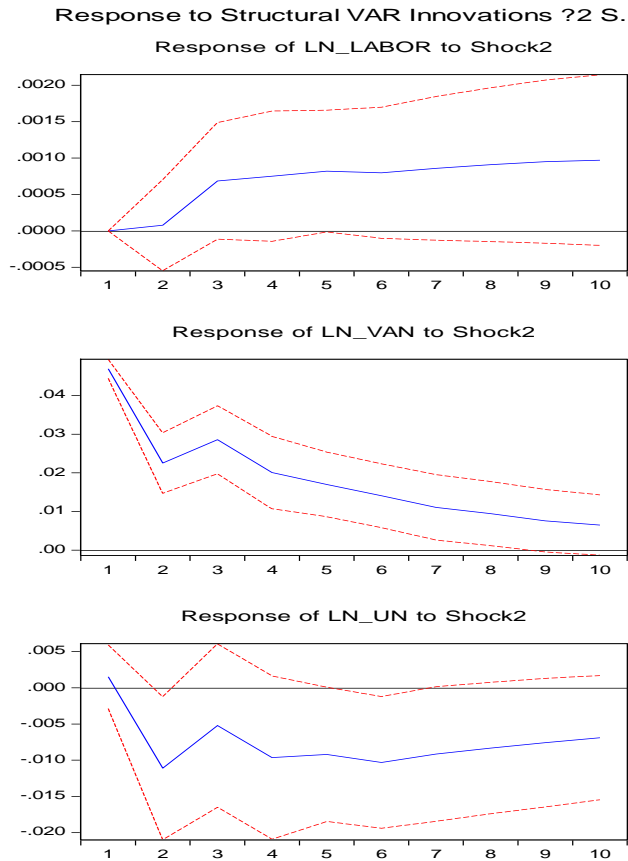
먼저, 노동공급충격의 효과가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그림 4]에는 노동공급충격이 경제활동인구와 다른 VAR 변수들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양(+)의 노동공급충격은 오랜동안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충격은 빈 일자리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동공급충격은 초기에는 실업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론적으로 볼 때 노동공급의 증가는 두 부분으로 경제활동인구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실업의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취업자로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공급충격이 실업의 증가를 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경제적 직관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는 곧 이어서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4] 노동공급충격의 충격반응함수

[Fig. 4] Effect of Labor Supply Shocks

한편, [그림 5]에는 거시적 경제활동충격이 VAR 내생변수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양(+)의 경제활동충격은 경제활동인구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충격 후 3개월 이후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태로 해당 변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경제활동의 증가는 기업의 빈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의 중간패널 참조). 또한 [그림 5]의 하단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활동의 증가는 실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나 산업생산의 증가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편입시키는 효과가 있고 기업의 일자리를 증가시킨다. 또한 실물경제활동의 회복은 실업을 줄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결과는 경제이론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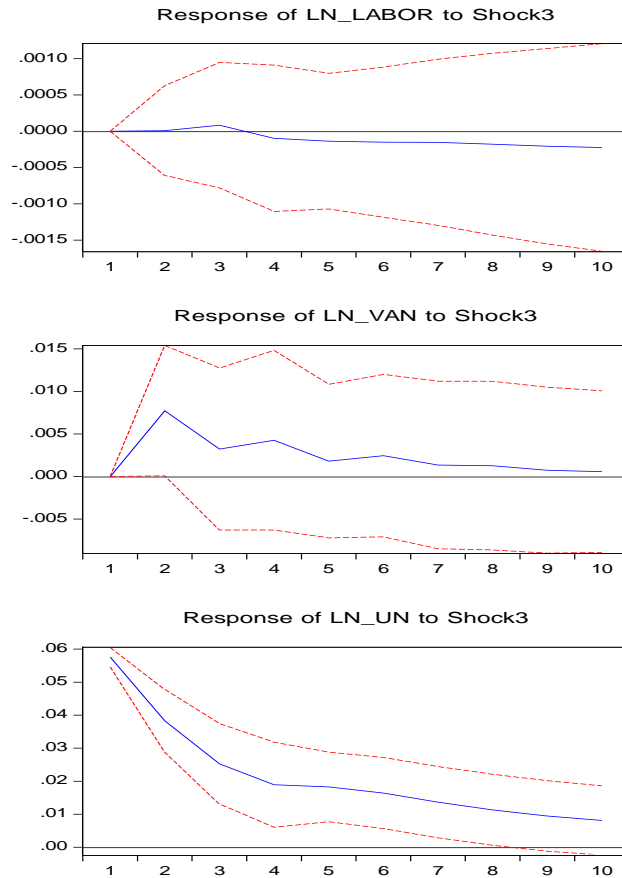
[그림 5] 경제활동충격의 충격반응함수

[Fig. 5] Effect of Economic Activity Shocks

마지막으로 재분배충격의 충격반응함수가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재분배 충격은 경제활동인구와 빈일자리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분배 충격은 실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재분배 충격은 충격 직후부터 시작하여 오랜기간 이후에도 경제활동인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재분배충격은 충격후 2개월 이후까지는 빈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서는 충격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재분배 충격은 아주 오랜기간 동안 실업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분배충격이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부터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많이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추정결과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국내의 실업이 전적으로 총수요변동 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Response to Structural VAR Innovations ?2 S.E.



[그림 6]재분배충격의 충격반응함수

[Fig. 6] Effect of Reallocation Shocks

#### 4.4 분산분해

예측오차 분산분해(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VD)는 개별의 구조적 충격들이 VAR 모형의 내생변수들의 변동에 기여한 비중을 가리킨다. 만약 특정의 구조적 충격(예를 들어  $\epsilon_{it}$ )이 다른 변수(예를 들어  $y_t$ )들의 예측오차분산에 대해 크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 특정변수  $y_{it}$ 는 외생적이라고 한다. 아래의 [표 1]에는 고려되는 세 개의 VAR변수의 예측오차 분산분해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왼쪽 열의 시기는 예측기간을 나타낸다.

먼저 경제활동인구의 예측오차는 10개월후에 노동공급충격에 의해 93.65%가 설명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활동충격에 의해 6.13%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분배충격은 거의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변동은 노동시장으로의 신규 집입 혹은 재편입 등과 같은 노동공급충격에 많이 기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의 중간패널에는 빈일자리 예측오차 분산분해가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제시되어 이는 바와 같이 노동공급충격은 10개월 이후 빈일자리의 예측오차 변동의 15.36%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경제활동충격이 82.8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분배 충격은 빈일자리에 예측오차 변동의 1.80%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실업예측오차 변동의 경우에는 노동공급충격이 3.20%를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경제활동충격이 8.8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분배충격이 87.96%를 설명하였다([표 1]의 우측 열 참조). 이러한 분산분해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빈자리 변동이 산업부문간 이동(sectoral shift)보다는 전체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되지만 실업의 예측오차 변동은 주로 재분배 충격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분산분해

[Table 1] Variance Analysis

시기	경제활동인구 분산분해			빈자리 분산분해			실업 분산분해		
	노동공급 충격	경제활동 충격	재분배 충격	노동공급 충격	경제활동 충격	재분배 충격	노동공급 충격	경제활동 충격	재분배 충격
1	100.00	0.00	0.00	8.05	91.95	0.00	3.04	0.067	96.90
2	99.98	0.02	0.00	11.50	86.57	1.93	2.80	2.46	94.74
3	98.63	1.35	0.02	9.93	88.30	1.77	3.21	2.63	94.16
4	97.50	2.46	0.04	12.06	85.99	1.95	3.83	3.89	92.28
5	96.52	3.41	0.07	12.17	85.94	1.88	3.70	4.90	91.41
6	95.92	3.98	0.10	13.19	84.91	1.89	3.50	6.13	90.37
7	95.34	4.54	0.12	13.66	84.47	1.87	3.38	7.04	89.58
8	94.75	5.10	0.15	14.31	83.84	1.85	3.30	7.77	88.93
9	94.17	5.64	0.18	14.82	83.35	1.82	3.24	8.36	88.40
10	93.65	6.13	0.22	15.36	82.84	1.80	3.20	8.84	87.96

### 5. 결론

본 논문은 한국 노동시장의 동학을 설명하는 경제적 충격의 영향을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주요한 변수인 경제활동인구, 실업 및 빈 일자리수가 고유의 경제적 충격들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공급의 양(+의 충격은 경제활동인구와 빈자리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공급충격 직후 실업은 증가하였지만 곧 바로 그 영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활동충격은 경제활동인구와 빈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분배 충격은 경제활동인구와 빈자리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실업은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분산분해 결과 경제활동 예측오차의 변동은 노동공급충격에 빈자리 예측오차는 경제활동충격에, 그리고 실업의 예측오차변동은 주로 재분배 충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아직까지는 실증적 연구분야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충격에 따른 노동시장 동학을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증적 분석결과는 한국 노동시장의 동학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References

- [1] O. Blanchard, P. Diamond, The Beveridge Curv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89), Vol.1989, No.1, pp.1-76.  
DOI: <https://doi.org/10.2307/2534495>
- [2] T. Mortensen, A. Pissarides,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the Theory of Unemployment,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94), Vol.61, No.3, pp.397-415.  
DOI: <https://doi.org/10.2307/2297896>
- [3] Pissarides, A. *Equilibrium unemployment theory*, 2th ed., MIT Press, (2001)
- [4] S. Ko, The Macroeconomic Assesment of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using the Extended Matching Function,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2016), Vol.26, No.2, pp.261-293.  
DOI: <https://doi.org/10.23036/kapae.2016.26.2.010>
- [5] G.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vacancy rate in Korea economy, *Monthly labor Reivew*, (2019), Vol.10, pp.61-73.
- [6] Kim Jiwoon, Estimation of the Matching Function in Korea by Mitigating Endogeneity Problem,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2020), Vol.43, No.2, pp.109-133
- [7] D. Borowczyk-Martins, J. Gregory, P. Fabien, Accounting for Endogeneity in Matching Function Estimation, *Review of Economic Dynamics*, (2013), Vol.16, No.3, pp.440-451.  
DOI: <https://doi.org/10.1016/j.red.2012.07.001>
- [8] S. Hwang, S. Park, Assessment of the Labor Market Mismatch, *Monthly Statistics Review*, (2021), Vol.2, pp.16-34.
- [9] <https://kostat.go.kr/board.es?mid=a10502030200&bid=3210>, Jan 08 (2023)
- [10] <http://laborstat.moel.go.kr/>, Jan 08 (2023)
- [11] M. Song, A Study on the Dynamics of the Korea Labor Market, Kyungnam University, Master Thesis, (2022)
- [12] C. Sims, *Macroeconomics and Reality*, *Econometrica*, (1980), Vol.48, No.1, pp.1-48.  
DOI: <https://doi.org/10.2307/1912017>
- [13] C. Sims, J. Stock, M. Watson, Inference in Linear Time Series Models with some Unit Roots, *Econometrica*, (1990), Vol.58, No.1, pp.113-144.  
DOI: <https://doi.org/10.2307/2938337>